

##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타난 TV드라마의 동성애

조서연\*

### <차례>

1. 기존 동성애 드라마의 경향과 <인생은 아름다워>
2. 가족드라마의 보수성과 동성애 소재의 문제
3. 확대가족 속의 동성애자 아들이라는 존재
4. 동성애자 가족에 관한 정서적 공감의 구축 과정
5. ‘아들의 남편’과 더불어 산다는 것

### <국문초록>

<인생은 아름다워>는 TV에서 방영된 주말연속극 가족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애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의를 지닌 작품이다. 이 글은 <인생은 아름다워>가 성소수성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드라마의 장르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다는 독특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TV 가족드라마는 일상성과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가화만사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장르이므로 동성애와 같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소재를 다루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이 동성애자 인물을 포용하는 서사를 무리 없이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작품이 방영되는 동안 드라마 속 가족들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시청자들이 서서히 동조할 수 있는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기존의 동성애 소재 드라마와는 달리 동성애자 인물을 대도시의 고립된 개인이 아닌 제주도에서 모여 사는 확대가족의 장손으로 설정하고 해당 인물에게 결혼의 서사를 부여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이성애 결혼 서사와 병치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가 유별나고 비정상적인 개인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문제이며 동성애자 구성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드라마 속 가족의 화목함을 위한 길이라고 여기게 되는 인지를 이끌어낸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또한 동성애자 인물에 대한 가족들의 대사에서 은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인물이 처한 각각의 상황을 묘사하는 화면 및 음향의 대비적인 연출을 통해 특정한 정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는 TV드라마에서 동성애자를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서서히 해소하고 극중 동성애자 가족의 존재를 정서적으로 용인하게끔 만드는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처럼 <인생은 아름다워>에 있어서 가족드라마라는 장르와 동성애라는 소재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들이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궁극적으로 작품 속 동성애자 인물들의 존재를 ‘애달픈 우리 아들’과 ‘아들의 남편’으로 위치시킨다. 이는 성정치학적인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기존의 드라마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동성애자의 비극적인 생명이라는 벽을 허물어낸 것은 <인생은 아름다워>의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동성애, 가족드라마, TV드라마의 보수성, 확대가족, <인생은 아름다워>

## 1. 기존 동성애 드라마의 경향과 <인생은 아름다워>

한국 TV드라마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소재가 전면에 드러난 것은 미니시리즈 <째즈>(1995)를 필두로 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의 일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의미 있는 한 경향으로 파악될 수 있을 만큼 그 수효가 늘어났다.<sup>1)</sup> 비록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성소수성(sexual minority)이 이처럼 TV드라마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작품들이 미니시리즈나 단막극 혹

1) 가령 노회경 작 <솔플 유혹>(1999)과 같은 작품이 동성애자를 본격적으로 조명하여 화제를 이룬 바 있으며, 2002년에는 <연인들의 점심식사>와 <그를 만나고 싶다>와 같은 단막극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제 동성애자로 설정된 인물을 전면화한 작품은 이 글의 대상 텍스트인 <인생은 아름다워>(2010)가 거의 유일하며, 이 시기 동성애를 다루는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성소수성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퀴어 코드를 가볍고 경쾌하게 재현하거나 부수적인 소재로 활용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남장 여자를 등장시켜 퀴어 코드를 트랜디하게 풀어낸 <커피프린스 1호점>(2007), 이성애자이지만 게이로 오인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 <개인의 취향>(2010)이 퀴어 코드를 삽입하였고, 그 외 <아일랜드>(2004), <미스터 굿바이>(2005) 등 몇몇 미니시리즈에서 유사 동성애적 소재를 이용한 바 있으며, 동성애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작품에서도 희극적인 장면에서 일종의 양념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퀴어 코드가 종종 등장하게 된다.

이상 언급된 드라마들은 모두 남성 동성애/양성애를 다룬 것들이다. <두 여자의 사랑>(1995),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2011) 등 여성 성소수자를 주요 인물로 내세운 드라마의 경우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키거나 여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남성 성소수자를 다룬 작품들과는 그 경향이 다르며 실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지니고 있는 젠더적 지위의 차이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은 2부작과 같은 양식(format)으로 방영되었다는 데에 힘입은 바가 크다. 가령 미니시리즈의 경우는 대개 트렌디 드라마의 맥락에 있는 작품들로 서, 20~30대 여성 시청자의 취향을 공략하는 아이템으로 퀴어 코드를 삽입한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주된 시청자층의 성향이 패그-해그(fag-hag)<sup>2)</sup>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덕분에 공중과 방송이라는 보수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소재를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었다.<sup>3)</sup> 한편 퀴어 코드의 수위를 넘어서 동성애자의 존재를 한층 전면적으로 다룬 기존의 TV드라마는 대부분이 비극적인 성향을 띠는 단막극 혹은 2부작이었다. <째즈>, <슬픈 유혹>, <연인들의 점심식사>, <그를 만나고 싶다> 등이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데, 이들은 방영 양식의 특성상 문예적 취향을 지닌 마니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가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sup>4)</sup> 즉, 지금까지 TV드라마에서의 성소수자 소재 및 퀴어 코드의 채택은 주된 시청자층을 비교적 한정될 수 있는 방영 양식 안에서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한편 TV드라마에서 동성애 소재를 다룬 최근의 사례인 <인생은 아름다워>는<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2) 남성 동성애자/양성애자들에게 호의적이며 그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성애자 여성을 뜻한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사전 및 Wikipedia 참조)

3) 최근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20~30대 여성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아이돌 팬픽’(idol fan fiction) 등의 청소년 문화를 통해 이미 남성 동성애 소재의 픽션에 친화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의 이와 같은 문화적 체험은 이들이 대중문화에서 동성애 소재를 다루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나아가 국내외의 각종 텔레비전 드라마를 동성애적 텍스트로 바꾸어 소설·만화·영상편집물 등의 2차 창작물로 패러디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향유하는 현재의 경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한유림, 『2,30대 여성의 아이돌 팬픽 문화를 통해 본 젠더 트러블』,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석사논문, 2008 참조.

4) 이 중 <째즈>는 8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이며 당시 유행하던 ‘압구정동 오렌지족’을 담아낸 일종의 트렌디 드라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성과 관련하여 가장 비극적인 결말-성정체성을 비판한 두 주인공의 자살-을 그려내는 해당 작품의 서사와 정조를 생각할 때, 동성애 소재를 다루는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단막극 및 2부작 작품들과 같은 궤에 놓을 수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약 8개월에 걸쳐 방영된 주말연속극이라는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드라마 장르에 속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는 여타의 TV드라마에 비해 더욱 강한 보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워>는 현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섹슈얼리티를 지닌 인물의 존재를 전면화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실제로 <인생은 아름다워>를 다룬 두 편의 기존 연구는 해당 작품이 성적정치적으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6)</sup>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각각 해당 소재를 다룬 작가와 연출 등의 제작진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의 인식 수준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인생은 아름다워>가 기존의 성소수자 소재 TV드라마와 차별되는 양식과 장르에 속한 작품이라는 점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따라서 이 글은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 소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방영되는 주말 가족드라마라는 제약과 현실적으로 좀처럼 용인되지 않는 섹슈얼리티인 동성애의 전면화라는 내용이 서로 만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요소는 일견 상충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오히려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 TV드라마의 장에서 동성애자의 존재가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존재를 가족드라마에서 다룰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드라마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가족드라마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대하는 시청자의 인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그 요건을 살피는 것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동성애자 인물을 다루는 <인생은 아름다

5) 김수현 작, 정을영 연출, SBS 주말 특별기획드라마. 2010.3.20~2010.11.7 방영.  
6) 김연정, 『TV 드라마 내 동성애 재현 방식에 대한 연구-<째즈> <슬픈 유혹> <인생은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선옥, 『드라마와 동성애에 답문-<인생은 아름다워>』, 『실천문학』 99호, 실천문학사, 2010.

위>가 실제로 사용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주로 확대가족이라는 인물 구도 속에 동성애자 인물을 위치시켜 전체 방영 분량의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을 조명할 것이며, 4장에서는 해당 인물들이 지닌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연출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TV드라마라는 장이 지닌 보수성과 성소수성이라는 돌출된 소재가 화합하는 특유한 방식을 이해하고, <인생은 아름다워>가 지닌 독특한 의의와 그 한계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가족드라마의 보수성과 동성애 소재의 문제

TV 시청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TV드라마 시청이란 특별한 종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sup>7)</sup> 또한 TV 시청자는 수상기를 소유한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다. 때문에 TV드라마는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둘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대중을 잠재적 시청자로 상정한다. 설령 특정한 계층을 문제 삼더라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타협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대중적 극예술인 영화와 TV드라마에서 2000년대 들어 양자 모두 성소수성이라는 소재를 자주 채택하였지만, 일상과 분리된 극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일회적으로 감상되는 영화가 성소수자 인물들의 성애를 비교적 노골적으로 담아낸 것에 비해<sup>9)</sup> TV드라마의 경

우 그 수위를 현저히 낮추거나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시청 환경이 지닌 이러한 제약에 기인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을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TV드라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지만, 그 제약의 강도는 개별 드라마의 양식과 장르에 따라 달라진다. 양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일회적으로 방영되는 단막극이나 8~12주 정도의 한정된 기간에 방영되는 미니시리즈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영되는 일일연속극 및 주말연속극에 가해지는 제약이 더욱 강하며, 장르의 측면에서는 트렌드드라마나 멜로드라마 등에 비해 가족드라마의 경우가 한층 높은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양식 및 장르가 얼마나 높은 일상성과 현실성을 요구받느냐 하는 점에서 비롯되는 차이이다.<sup>10)</sup> 긴 기간 동안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편성을 통해 시청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정도가 높은 양식일수록, 또한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현실을 유사하게 담아내는 장르일수록 소재와 내용의 전개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제약 또한 강해진다.

장르의 측면에서 볼 때 김수현의 드라마는 불륜과 같은 일탈적인 애정 관계를 다루는 멜로드라마 유형의 작품과 다양한 개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인 확대가족의 일상적 삶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가족드라마 유형의 작품으로 대별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11)</sup> 전자의 드라마들은 그 도발

이 작품들 중 상당수가 동성 간의 연애 심리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거나 일정 수위 이상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담아내었다는 점은 TV드라마의 성소수자 재현과 차이를 보인다.

10) TV드라마의 여러 양식 가운데 텔레비전의 일상성이 발휘되는 양식은 ‘일일연속극’과 ‘주말연속극’이며, ‘단막극’과 ‘미니시리즈’는 상대적으로 텔레비전의 일상성에서 벗어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 확보 방식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Vol.21, 한국극예술학회, 2005, 319면.)

11) 김수현 드라마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가 이러한 유형 분류에 동의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영미, 「문체적 작가 김수현」,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나무, 171-175면 ; 유진희, 「김수현 멜로드라마의 장르분법과 성 이데올로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

7) John Ellis, *Visible Fictions : Cinema, Television, Video*, London:Routledge&Kegan Paul, 1982, p.113.

8)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도서출판 人, 2009, 174면.

9) 해당 영화로는 남성 동성애의 경우 <번지점프를 하다>(2001), <로드무비>(2002),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2005), <왕의 남자>(2005), <후회하지 않아>(2006), <쌍화점>(2008), <엔티크>(2008) 등을, 여성 동성애의 경우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1999), <추홍글씨>(2004), <오감도>(2009), <창피해>(2010) 등을 들 수 있다.

적인 성격으로 인해 당대 사회의 도덕적 통념을 벗어나는 측면이 강하므로 시청자들의 저항감을 자아내었지만,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지닌 미덕을 그려내는 후자의 드라마들은 그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에 힘입어 별다른 저항 없이 시청자들의 일상 속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이 김수현 드라마를 둘러싼 반응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생은 아름다워>는 가족드라마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표방한 작품이었음에도 이례적인 저항에 부딪히며 방영을 시작했다.<sup>12)</sup> 현실세계의 성도덕이 허용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일탈적 소재인 동성애를 다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해당 작품의 서사를 이루는 세 요소들 중 동성애라는 소재가 나머지 요소들에 비해 일탈성의 정도가 유독 높았다는 것은 평소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든 부정적인 사람이든 부인하기 힘든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 존재에도 <인생은 아름다워>는 조기에 종영되기는커녕 애초 예정된 50화의 분량보다 13화가 늘어난 63화로 연장 방영되었으며 시청률 역시 20%대의 안정적인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였다.<sup>13)</sup> 또한 SBS 홈페이지의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동성애 소재를 다루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의 구도에서 동성애자 인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수적 우세를 이루어왔으며, 방영이 종료된 후 1년이 넘는 시일이 지난 2012년 1월 현재까지도 ‘불란지 가족’<sup>14)</sup>을 그리워하는 감상평이 매일같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전체

지』Vol.9, 한국콘텐츠학회, 2009 ; 유진희,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Vol.10, 한국콘텐츠학회, 2010.

12)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작 발표 당시부터 가족드라마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언론에서는 동성애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이슈화하였고, 이후 방영 중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일간지에 종영 요구 광고를 실는 등의 저항이 있었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27일자와 9월 28일자 지면에 각각 광고.)

13) 2010.3.20(1화 방영일)~2010.11.7.(63화 방영일) TNmS 시청률 조사, AGB 시청률 조사 참조. ([http://ko.wikipedia.org/wiki/인생은\\_아름다워\\_\(2010년\\_드라마\)#cite\\_note-1](http://ko.wikipedia.org/wiki/인생은_아름다워_(2010년_드라마)#cite_note-1))

14) ‘불란지’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중심을 이루는 4대 확대가족 중 2대의 장남인 양

게시물들 중 ‘경태커플’<sup>15)</sup>에 대해 애초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환호에 집중하는 패그-해그 유형의 시청자들이 남긴 게시물에 비해, 자녀를 둔 부모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평소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 드라마가 회차를 거듭하여 진행되면서 해당 인물들의 성소수성을 가족에라는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인정하게 된 시청자 자신의 심경 변화를 토로하는 게시물의 비중이 더욱 높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지점이다.<sup>16)</sup>

이는 <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 소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영되는 주말연속극 가족드라마라는 양식과 장르의 조건 내에 안착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TV드라마에서 동성애자 인물이 다루어질 때 그 방영 양식이 단막극 혹은 미니시리즈였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비극적이거나 환상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현실과는 유리된 것으로 처리된 점과 비교해보면 <인생은 아름다워>가 지닌 특정한 조건의 의미는 한층 더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TV 가족드라마의 서사는 대개 정상성에의 결격사유를 지닌 것으로 판명된 가족 구성원을 나머지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묘사하고 그 균열을 가족애로 봉합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는 구도를 보여준다. 또한 가족드라마는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심각한 갈등이

병태와 김민재 부부가 운영하는 펜션의 이름으로, 반딧불을 뜻하는 제주어 어휘이다. 이하 이 글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확대가족을 편의상 ‘불란지 가족’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15) 극중 동성애자 인물인 양태섭-김경수 커플을 가리켜 시청자들이 만들어낸 애칭.

16) <인생은 아름다워>의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구체적인 유형 분류 및 각각의 수치와 비율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해당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수용 양상의 연구라는 별도의 주제 하에 진행되어야 할 복잡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 현재까지 확인된 게시물의 전반적인 경향을 관찰한 결과를 이와 같이 간략하게만 정리해 두고자 한다. 본문에서 정리된 내용은 SBS 홈페이지의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 게시판(<http://tv.sbs.co.kr/beautifullife/>)을 방문하여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전개된다 하더라도 종내에는 가화만사성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드라마에서 극적 갈등의 생성을 위해 일탈적 소재가 배치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타 장르와는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

이 때 <인생은 아름다워>에서의 동성애자와 같이 문제가 되는 인물의 일탈적 속성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 인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서사가 그럴싸한 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시청자들의 통념에 일정 정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물론 시청자들의 실제 가치관 전체가 드라마 한 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현실에서의 동성애에 대해 개별 시청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드라마가 종영한 후 도로 되살아날지언정, 드라마의 방영 기간을 꾸준히 ‘견디는’ 동안만큼은 극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상당하는 시청자들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이에 실패할 경우 해당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방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낮은 시청률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통념의 변화는 시청자가 자신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먼저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할만한 동인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생은 아름다워>가 가족드라마로서 시청자에게 공감을 얻어낸 현상이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로, 해당 드라마가 보여 준 서사 전개 및 시청각적 연출이 장기간에 걸쳐 드라마를 보는 동안 시청자에게 발생하는 인지의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들 수 있다.

가족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구조상의 변화를 겪는다. 드라마의 시작 당시에는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가부장제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가정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돌출되는 가정 내의 일탈적 존재를 가족에의 가치 아래 포용하면서 종국에는 새로운 구조의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드라마의

결말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의 구조에 대한 시청자의 공감은 일련의 선조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되지 않고 지속적인 혼성(blending) 작업을 통해 구성된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우선 드라마의 도입부에서 제시되는 기존의 가정을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이라고 명명하고, 드라마의 진행상에서 돌출되는 요소와 결말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구조의 가정을 각각 ‘일탈적 구성원’과 ‘화목한 변형 가정’이라고 명명해 보자.

가족드라마의 전개 과정을 볼 때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이 ‘화목한 변형 가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는 ‘일탈적 구성원’의 등장이다.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크게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TV 가족드라마의 성격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족드라마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화만사성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일탈적 구성원’을 가족의 품에 포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 결과 도출된 새로운 가정의 최종적인 구조가 바람직한 것임이 드라마의 전개 과정에서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면 서사가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가족드라마에서의 갈등과 봉합의 서사가 시청자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서사 전개 과정의 설득력에 힘입은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대상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이 변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다. 그 중 특정한 TV드라마 작품을 장기간에 걸쳐 시청하면서 극중 소재에 대해 시청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통념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고방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에 적절한 문제이며, 이는 인지 과정에서의 ‘범주 변형’(category transformation)이라는 현상에 비추어 설명해 볼 수 있다. 범주 변형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상의 범주를 확장해서 새로운 범주를 조직하는 사고 과정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를 가족드라마에 적용해 볼 경우 ‘관습적인 범주’는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에, ‘새로운 범주’는 ‘화목한 변형 가정’에 각각 대응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족드라마의 서사

전개에서 발생하는 가정 구조의 변화와 이를 대하는 시청자들의 공감이라는 현상에 범주 변형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의 ‘관습적인 범주’를 확장하여 변형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범주를 조직하기 위해 개입하는 ‘제2의 범주’와 드라마의 서사 전개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일탈적 구성원’의 존재가 각각 수행하는 역할의 유사성에 있다.

기존의 ‘관습적인 범주’와 ‘제2의 범주’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에 좀처럼 동시에 함께 떠올리지 않으며 서로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다. 그러나 시스템이나 사회 및 상황 등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관습적인 범주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야 할 계기가 생길 때에는 서로 혼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새로운 범주’의 조직 가능성은 ‘관습적인 범주’와 ‘제2의 범주’가 성공적으로 혼성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으며, 혼성의 성공은 각각의 범주에 부여되어 있는 수많은 속성들 중 범주 변형에 도움이 되는 속성들만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골라내어 새로운 범주로 투사(project)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범주 변형의 인지 과정이 성공하는 데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기존의 ‘관습적인 범주’와 ‘제2의 범주’에서 특정한 속성들만을 골라내는 기준을 알맞게 세울 수 있는가의 여부인 것이다.<sup>17)</sup>

17) 범주 변형 원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최영호 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2009, 193-199면과 387-399면을 참조.

범주 변형 원리와 관련하여 실제 인지과학에서 쓰이는 용어는 ‘정신공간(mental spaces)’, ①‘입력공간(input space) 1’, ②‘입력공간 2’, ③‘혼성 공간(blended space)’, ④‘선택적 투사(selective projection)’, ⑤‘원형적 요소(prototypical element)’이며, 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정신공간의 벤 다이어그램을 일일이 그리고 공간횡단 사상(cross-space mapping)을 화살표로 표현하여 범주 변형의 과정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범주 변형 원리를 원용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가족드라마의 서사 전개에 동조하게 되는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으므로, 직관적으로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인지과학의 전문 용어를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에 많은 분량을 따로 할애하는 것은 필수적이거나 효율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독者的 편의를 위해 해당 용어들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원래 개념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고 그 과정 또한 줄글로 간단히 서술하였다. 바뀐 어휘는 각각 순서대로 ①‘관습적인 범주’, ②‘제2의 범주’, ③‘새로운 범

‘관습적인 범주’에 대응하는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과 ‘제2의 범주’에 대응하는 ‘일탈적 구성원’ 또한 평소라면 얼른 함께 연상하지 않는 대상들이다.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과 ‘일탈적 구성원’이 서로 간섭하여 ‘화목한 변형 가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통념상에서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드라마의 서사 전개가 두 범주를 조화시켜 ‘화목한 변형 가정’을 조직해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특정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는 이 두 범주의 혼성이 시도된다. 시청자가 해당 드라마의 동조하기 위해서는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 범주와 ‘일탈적 구성원’이라는 범주에 대해 우리가 평소에 떠올릴 수 있는 수많은 속성들 중 범주 변형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속성들만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기준에 대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가족드라마 작품의 서사가 범주 변형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기준이 시청자가 보기에 비현실적이거나 그럴싸하지 못하다면 해당 드라마는 결국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드라마는 가화만사성의 가치 재확인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우선 속성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인 통념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족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범주 변형에서의 속성 선택 기준은 개별 작품의 주제의식에 따라 ‘진취적인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는 ‘단란한 가정’이나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가정’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당대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시청자가 그러한 기준에 동의하게끔 드라마를 진행시키는 구체적인 전략 또한 인물간의 관계 구도나 플롯의 전개와 같은 요소, ‘일탈적 구성원’ 역할을 맡은 배우의 연기 방식, 인상적인 배경음악의 사용 등 각 드라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TV드라마라는 예술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주’, ④‘투사’, ⑤(‘특정한 속성을 골라내는’ 기준’이다.

그런데 이 기준의 현실성은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엔 앙(Ien Ang)은 시청자들이 TV드라마의 내용을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외부 세계의 사회적 현실성에 대한 환영적 일치가 아닌 ‘정서적 리얼리티’의 구축에 입각해 있다고 말한다.<sup>18)</sup> 즉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의 사건 전개가 지닌 논리적인 개연성에서보다는 심리적 상황이 실감나게 묘사된 데에서 현실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sup>19)</sup> 이러한 연출이 범주 변형에서의 속성 선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때 비로소 ‘일탈적 구성원’이 가족에게 포용되어 ‘화목한 변형 가정’의 구조를 새로이 형성해내는 가족드라마의 서사 전개가 시청자들에게도 공감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인생은 아름다워>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서사 구조와 시청각적 연출상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3. 확대가족 속의 동성애자 아들이라는 존재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방영된 주말연속극인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4대 가족의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장년층 부부를 중심으로 한 3대 이상의 확대가족이 한울타리 안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상적으로 풀어내는 김수현 식 가족드라마의 전형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총 63회의 장편 서사로 이루어져 있고,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수많은 인물들에게 각자의 에피소드가 비교적 비슷한 분량으로 분배되어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극의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불란지 가족’의 2대와 3대에 속하는 인물들이 겪는 결혼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등장 순서대로 보자면 3대 장남인 태섭의 결혼, 3대 차남인 호섭과 연주의 결혼, 2대 차남인 병준과 아라의 결혼, 그리고 드라마의 종영 이후인 미래에 결혼으로 맺어질 것이 예견되는 2대 삼남인 병걸과 남식의 연애 및 3대 차녀인 초롱과 동건의 연애 등으로 정리된다.<sup>20)</sup>

이를 바탕으로 가족드라마로서의 <인생은 아름다워>의 서사를 범주 변형의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 드라마에서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 범주의 속성들은 곧 1대의 전통적 결혼과 출산이 2대, 3대에서 반복되고 미래에는 4대에까지 이어져 수형도 형태의 행복한 대가족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속 세계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된다. ‘불란지 가족’이 생각하는 가화만사성의 조건을 이루어 줄 첫 번째 인물인 태섭이 실은 전통적인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애자이자 동성 연인 경수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탈적 구성원’에 해당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인생은 아름다워>는 가족드라마로서 가족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해야 하므로 소위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구실로 하여 장남인 태섭을 가족으로부터 추방하는 서사를 전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주말연속극의 일상성과 현실성 및 보수성이라는 조건 또한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생은 아름다워>가 태섭과 관련하여 전개할 수 있는 서사의 선택지로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태섭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거나 포기하고 전통적인 이성애 결혼을 함으로써 극중의 ‘불란지 가족’ 및 현실 속의 시청자들을 안심시키는 방향, 혹은 반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태섭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의 연인 경수의 존

18) Ien Ang, *Watching Dalla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6, p.47.

19) 글렌 크리버 외, 박인규 역, 『텔레비전 장르의 이해』, 산해, 2004, 88면.

20) 그 외의 서사를 채우는 1대의 할머니인 고점례와 그 남편 사이의 일들이나 2대 장남인 병태와 민재 부부의 사건들, 3대 장녀인 지혜와 수일 부부의 갈등 또한 결혼이라는 문제를 그 바탕에 두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재를 인정하며 이것이 가화만사성의 가치를 발판으로 하는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아님을 시청자들에게 설득하는 방향의 두 가지가 남는다. 이 드라마는 그 중 후자의 서사를 택하고 있으며, 해당 서사의 전개를 통해 궁극적으로 형성되는 ‘화목한 변형 가정’의 범주 속에 동성애자 장남과 그의 남편이라는 구성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태섭** : 어떻게 감당하랴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식구들 어떻게 감당하랴구.

**경수** : 그래서 영원히 끌구 가겠단 거야? 그럴 수 있단구 생각한단 말야?

**태섭** : 죽는 날까지 나 혼자 끌어안고 갈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지.

**경수** :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이 뭐야.

**태섭** : 나는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거. 네 어머니가 우리 집엘 쳐들어오시거나 말거나 상관없다고 버틸 배짱이 없다는 거. 더해? 내가 돌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일 당하게 할 수 없다는 거. 널 아무리 좋아해도 눈 질끈 감고 네 생각만 할 수 없다는 거. 네 어머니가 무서워 덜덜 떨었다는 거. 이 절망감은, 바닥이 없다는 거!

(<인생은 아름다워> 19화, 밑줄 인용자)<sup>21)</sup>

**경수 모** : (고집스러운) 너같은 사람두 멀쩡하게 결혼생활하는 사람 많대.

**경수** : (안타깝게) 그렇게 살기 싫다 그랬잖아요.

**경수 모** : 아버지를 생각해 경수야. 집안을 생각해.

(...중략...)

**경수 모** : 알고보니 내 아들이 그렇더라 세상에 공표라두 하란 거야?

21) <인생은 아름다워>는 김수현의 다른 일부 작품들과 같이 확정 출판된 대본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대본 인용은 작가 공식 홈페이지(www.kshdrama.com) 스크립트 메뉴에 일부분이 게재된 것을 바탕으로 하며, 게재되어 있지 않은 장면을 인용할 때에는 드라마 방영분을 직접 받아쓴 것으로 대신한다. 이하 인용에서는 방영 차수만 밝히기로 한다.

**경수** : 좋죠. 그래주시면 엄마 아들 같은 우리들 살기 편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죠.

**경수 모** : 세상에 무슨 꼴이 되구우워!

(15화, 밑줄 인용자)

위의 두 인용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다루어지는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화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태섭과 그의 연인 경수는 독립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극중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TV드라마 속 성소수자 인물들이 도시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거나<sup>22)</sup> 그들이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이성(異性)의 배우자 및 연인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sup>23)</sup> 대비되는 지점이다. 기존의 동성애 소재 텔레비전 드라마들이 해당 인물의 성소수성을 개인적 문제로 한정짓고 있다면, 가족드라마인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이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개인의 문제가 곧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는 현상은 김수현 가족드라마 특유의 확대가족 구성에서 비롯하고 있다. 가족드라마라면 으레 부모-자녀의 2대 혹은 조부모-부모-자녀로 이루어진 3대 가정이 등장하게 마련이지만, 김수현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도가 특별히 더 두드러지며 그것이 극작술상으로 중요한 발판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김수현이 창작하는 대부분의 가족드라마는 단순한 대가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 울타리, 한 집 안에 모여 사는 4대 이상의 확대가족을 기본 구도로 하고 있다.<sup>24)</sup>

22) 김연정, 앞의 글 참조.

23)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장르·미학·해독』, 문경, 2005, 67-94면 참조.

24) 스리바스타바 사티안슈, 「한국 TV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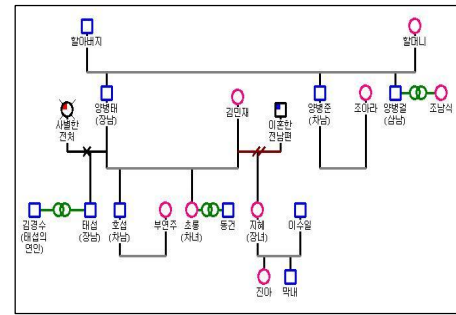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태섭이 지닌 성정체성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일반적 도덕 감정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극중 가족의 세대 구도에서 보자면 3대 장손으로서 결혼하여 대를 잇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떠오른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의 남동생인 호섭의 결혼으로 쉽게 해소된다.

태섭은 19화의 막바지에서 경수와 자신의 관계를 막내 여동생인 초롱에게 들킨 다음날인 20회에서 어머니인 민재에게 커밍아웃을 한다. 이 장면이 마무리된 후 민재는 남편 병태에게 이 소식을 곧장 전하는데, 여기에서 민재와 병태 부부가 아들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직후에 호섭의 결혼 서사가 시작된다. 병태가 민재와의 대화를 통해 게이 아들을 용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아쉬움을 담아 내뱉는 첫 대사가 바로 “장손인데, 그래도 장손인데”인데, 그에 대해 민재는 곧장 “호섭이 있잖아.”라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다. 더욱이 19회에서 20화에 이르기까지 초롱, 민재, 병태만 알던 태섭의 성정체성은 이후 극중에서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1회에서 ‘불란지 가족’ 모두에게 빠르게 공표되며, 이에 대한 각 가족의 입장 정리도 대부분 이 에피소드 안에서 일단락된다. 이처럼 태섭이 장손으로서 대를 이을 수 없음이 온 가족들에게 공공연해진 직후인 22화부터 곧바로 호섭을 결혼시키는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연주와의 결혼으로 맺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인생은 아름다워>는 서사의 진행에 있어 ‘일탈적 구성원’으로서의 태섭이 지닌 일반적이지 않은 섹슈얼리티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결혼 제도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근간을 위협할 틈을 전혀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범주 변형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 가능한 기준들 중 ‘안정적인 가족 제도를 뒤흔드는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기준은 버려진다. 이는 이 드라마의 ‘화목한 변형 가정’이라는 범주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기준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탈적 구성원’ 범주를 형성하는 동성애자 태섭의 속성 중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속성 또한 범주 변형 과정에서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3대 이상의 확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것은 또한 극중의 갈등이 세대의 구도와 젠더의 구도 속에서 동시에 문제적으로 포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도의 가족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대에 따라 노인층/장년층/청년층/청소년층으로 나뉘며, 이를 다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면 이중적 구조를 갖게 된다. 더욱이 [그림 1]의 가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란지 가족’의 구성원들은 4대가 모여 있다는 것 외에도 사별과 이혼, 재혼, 이복남매의 존재 등으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불란지 가족’의 가계도

세대의 구도에 주목하면 태섭의 성정체성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장년층인 2대에서 태섭의 부모인 병태와 민재, 작은아버지인 병준은 동성애자인 태섭을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인물들인 반면, 같은 장년층인 둘째작은아버지 병걸은 21화의 가족회의에서 그 사실을 듣자마자 동성에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청년층인 3대 중 호섭(과 이후 그의 아내가 되는 연주), 초롱, 지혜는 태섭의 성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지혜의 남편인 수일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병걸과 수일의 거부감은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다른 인물들의 설득과 회유 및 질타에 의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종내에는 극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할아버지와 아직 유치원생이라 사태를 파악할 수 없는 진아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태섭과 경수의 사이를 알게 되고 이들을 포용하게 된다.

이 중 처가살이를 하는 수일의 거부감은 처형인 태섭 및 처가 식구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쉽게 내비칠 수 없다는 처지 때문에 태섭의 성소수

성과 관련된 서사의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실제로 그의 거부감이 열어지는 과정 또한 희극적이고 가볍게 처리된다. 반면 병결은 태섭의 삼촌이자 ‘불란지 가족’의 2대 직계이기 때문에 그가 지닌 거부감은 실제로 태섭에게 위협이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불화를 자아내는 요소로 다루어진다. 이 때 병결의 동성애 혐오를 가장 크게 질타하는 인물이 병준이라는 것이 유의미한 지점이다. 극중에서 병준은 성소수성에 대한 ‘교양’을 갖춘 인물로, 병결은 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혐오감을 갖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병준이 병결에게 가하는 질타는 김수현 드라마 특유의 계몽적 뉘앙스를 지닌 대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년의 나이에 뒤늦게 맺어진 인연인 병준과 아라의 결혼 서사가 태섭과 경수의 결혼 서사와 병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병준과 아라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가장 농도 짙은 이성 간 연애를 보여주는 커플이다. 이들의 애정신이 태섭과 경수의 애정신과 교차적으로 편집되는 상황이 방영 기간에 걸쳐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태섭과 경수 사이의 연애와 결혼이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일 반적인 이성애자들의 사랑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 내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처럼 동성애 장면과 반복적으로 교차 편집되는 이성애 장면을 보여주는 병준이 바로 극중에서 가장 강한 동성애 혐오를 가진 병결이 마음을 고쳐먹도록 중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편집은 동성애와 이성애를 대비하는 효과보다는 양자 간의 유사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자아내게 된다. 결국 병준과 태섭의 결혼 서사 병치는 범주 변형의 ‘일탈적 구성원’인 동성애자가 실제 현실에서 지닐 수 있는 속성 중 ‘보통과는 다른 꺼림칙한 존재’라는 속성을 극중에서 다소나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범주 변형 과정에서 그와 같은 속성이 선택된다면 ‘화목한 변형 가정’이라는 새로운 범주는 형성되기 힘들 것이지만 결혼 서사의 병치를 통해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진다.

한편 젠더의 구도에서 볼 때 태섭의 커밍아웃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가족 구성원은 여성 인물들, 즉 어머니인 민재와 지혜, 초롱이다. 그 중 민재와 지혜의 경우 각각 ‘불란지 가족’의 계모와 의붓딸 -극중 할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데려온 자식’- 이라는 또 다른 ‘결함’을 갖고 있다. 덕분에 태섭과 경수에 대한 이들의 응원은 보편적인 가족애에서 비롯된 포용으로서의 의미는 물론, 사회가 설정해 놓은 정상적인 젠더의 구도 속에서 소수자로 위치해 있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대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녀 설득력이 배가된다. 실제로 드라마의 초반에는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말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태섭과 민재·지혜는, 태섭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서로간에 그간 쌓여 온 심리적 오해를 해소하고 다정한 관계를 형성해나가게 된다. 한 울타리에 모여 사는 4대 확대가족이라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설정을 지닌 <인생은 아름다워>는 오히려 그러한 가족 형태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도 덕분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가족드라마의 서사적 목표 속에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동성애자인 태섭을 확대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또 다른 발판을 이루는 것은 바로 ‘불란지 가족’이 살고 있는 공간의 특성이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서울이 아닌 제주도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2010년의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형태의 가정 모델이 현실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나 사진 작가와 같이 개인 활동이 보장되는 전문직을 가진 34세의 성인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생활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게이들의 게토(ghetto)도 활성화 되어 있는 자유로운 대도시 서울로 떠나지 않고 굳이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한 설정이다.<sup>25)</sup> 그러나 이

25) 경수의 경우는 더구나 서울 잠실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한층 더 부자연스러운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는 ‘김수현 월드’의 기반을 이루는 한 울타리 속 확대가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실제로 태섭과 경수의 동성 간 결혼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태섭과 경수를 둘러싼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한 공간 안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적 표현 및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의 변화이다. 확대가족의 구도 속에 위치한 태섭과 경수의 성소수성은 제거하면 되는 오염물과도 같은 타락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걸고 생각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 4. 동성애자 가족에 관한 정서적 공감의 구축 과정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서사와 인물 구도는 가족드라마 시청 과정에서 인지적으로 발생하는 범주 변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소수자 아들 및 그 동성 배우자의 존재를 포함하는 ‘화목한 변형 가정’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혼성해내는 발판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 변형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그럴싸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서사와 배역의 배치와 같은 비교적 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를 보다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편집, 화면 구도, 대사, 시청각적 연출과 같은 영역에서의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서사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범주 변형의 정서적 토대를 만드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TV 연속극 시청은 시청자들이 자신을 드라마 속에 이입하여 인물들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심리적 동기와 행동에 대해 토론하며 그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그들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세계의

공유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TV드라마, 특히 일일연속극이나 주말연속극의 경우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대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일탈적 소재를 다루는 데에 있어 제약을 받지만, 그 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도 하다. 이는 TV드라마의 편집이 반복과 지속의 형식으로 전개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주말연속극인 <인생은 아름다워>는 총 63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태섭의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범주 변형이 우선적으로 일단락되기까지의 서사는 전반부인 1화부터 31화까지의 방영분에 집중적으로 할애된다. 1~31화의 서사는 전개 과정상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태섭이 동성 연인 경수와의 비밀 연애, 그리고 서른네 살이 되도록 이성과의 결혼을 자꾸 미루는 장남인 자신에 대한 부모·조부모의 우려와 간섭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는 1~19화의 서사가 그 전반부라면, 태섭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불란지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백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수용하며 아들의 연인 경수를 ‘딸 같은 며느리’와 다름없는 ‘또 하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20~31화의 서사가 후반부가 된다.

이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앞쪽 절반 방영분을 ‘가족 내의 한 구성원이 지닌 비밀의 가시화 과정’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이 때 ‘비밀의 가시화’가 시청자에게 일어나는 시점(時點)과 등장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태섭의 성정체성 및 경수와의 연애 관계가 시청자에게 지각 가능한 수준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은 3화에서 발생하며, 태섭이 경수에게 “지금도 메가폰 하나 들고 병원 복도 돌면서 나는 게이다 외치고 싶을 때 종종 있어.”라고 말하며 ‘게이’라는 어휘를 직접 발화하는 5화에서 확고해진다. 시청자와 태섭, 경수만이 알고 있던 이 비밀은 9화(‘불란지 가족’의 만머느릿감이었던 채영에게 커밍아웃), 19화(막내 여동생 초롱이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됨), 20화(어머니 민재에게 커

26) Ien Ang, 앞의 책, 28면.

밍아웃한 후 민재가 남편 병태에게 사실을 전달함), 21화(민재 주도 하의 전체 가족회의), 22~마지막화(‘불란지’의 가족활동에 태섭·경수가 동반 참여를 반복하며 가족 구성원으로 녹아듦)에 이르기까지 드라마의 세계 속에서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이처럼 시점(時點)을 분배하면 시청자와 등장인물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비밀이 밝혀질 경우 태섭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태섭과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상과 회상의 공간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등장인물과 공모 관계에 들어가도록 텍스트 안으로 초대되는 것이다.<sup>27)</sup>

‘비밀의 가시화’와 관련된 이와 같은 진행을 통해 시청자가 드라마 속의 세계로 몰입하게 되는 현상은 긴장감이 도는 서사를 지연시키는 텔레비전 드라마 특유의 시퀀스 편집 방식과 관련이 있다. 가령 한 인물이다른 인물에게 비밀을 들킴으로써 긴장감이 고도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해당 시퀀스를 두 개 이상의 신(scene)으로 분할한 후 그 신들 사이에 전체 시퀀스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을 잠깐씩 삽입하곤 한다. 이 잉여적인 신은 시청자에게 해당 시퀀스의 첫 번째 신 이후 무엇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하도록 의도적인 공백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신에서의 긴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몰입의 정도를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sup>28)</sup> 이처럼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서사 진행은 <인생은 아름다워>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란지 가족’이 태섭의 일탈적인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경수까지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리라는 예상<sup>29)</sup>에 긴장감을 더해준다. 또한 시청자는 태섭의 커밍아웃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본인 및 각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시점(視點)에서 변주

27) 주창윤, 앞의 책, 167면.

28) 위의 책, 166면 참조.

29) 이는 가족드라마의 일반적인 장르적 관습을 알고 있는 시청자라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반복되는 편집을 통해 태섭·경수라는 인물 및 그들을 둘러싼 ‘불란지 가족’과 시청자 사이의 관계에 친밀감이 형성된다.



[그림 2]



[그림 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청자가 자신을 들여놓게 되는 ‘불란지 가족’의 세계가 지닌 성격 또한 가족드라마로서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분석함에 있어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시청자들이 ‘불란지 가족’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들이 띠고 있는 구술사회적 성격에 발판을 두고 있다. 맥루언에 의하면 구술사회의 인간은 개인화되어 살아가는 근대적 문자사회의 인간과 달리 사회집단 및 가족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정서적·공동체적인 가족감정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간다.<sup>30)</sup> 이러한 구술사회적 특성은 2차적 구술매체에 해당하는 텔레비전과 그 시청자 사이의 연결망에서도 발견되는 것인 동시에 드라마 텍스트 속의 세계에 있는 ‘불란지 가족’의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바이다.

[그림 2]는 본채 거실에서 소집된 가족회의에서 민재가 가족들에게 태섭이 동성애자임을 말하는 장면(21화)이며, [그림 3]은 커밍아웃 이전에 친구로 먼저 소개되는 경수가 태섭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한 날 가족들의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장면(8화)이다. ‘가족회의’와 ‘가족식사’의 두 가지의 구도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63회 방영 분량 내내 수없이 반복되는 연출이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거나 집 안에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갑론을박을 주고받

30) 이윤진, 『한국의 이야기 문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국학술정보, 2006, 34면.

는 것은 이들이 서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이 ‘대화’에 있음을 보여 주는 연출이다. 이 두 화면 구도는 각기 다른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준다. 이는 비단 <인생은 아름다워>뿐만 아니라 김수현의 거의 모든 가족드라마에서 가족적 정서의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구도이기도 하다.<sup>31)</sup>

경수가 처음 ‘불란지 가족’에 발을 들여놓은 날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 속에 경수가 편입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치이다. 19화~21화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태섭과 경수의 관계를 알게 되기 전, 8화에서 19화까지 총 12회에 이르는 분량동안 경수는 꾸준히 불란지 펜션을 방문하여 태섭의 가족들과 미리 가까워진다. 그 때마다 요리 연구가인 민재의 요리책 사진을 촬영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가족 공동 공간인 주방에서 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태섭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역시 경수가 ‘불란지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 끼어 있는 모습을 어느새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커밍아웃 직후인 22화부터 드라마가 종방할 때까지의 분량에서는 밥을 먹는 공간인 주방 뿐만 아니라 가족회의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 거실 테이블에도 경수가 앉아 있는 장면이 꾸준히 연출된다. 이는 경수가 장남이 데려 온 손님으로서 식사를 대접받는 위치를 넘어서 가정의 대소사에도 함께 하는 진짜 가족으로 인정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결혼기념일을 맞은 부모님께 경수와 태섭이 유럽 여행권을 선물할 때나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종합 검진료를 드릴 때 민재와 병태는 ‘장남의 남편’인 경수를 보며 “아들이 하나 더 생겨서 든든하다”고 말하는데, 이 장면들이 모두 예의 거실 테이블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극중 공간의 의미를 따져볼 때 의미심장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란지 가족’은 또한 지혜의 대사에서 말하듯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그걸 알게 되는 데에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인생은 아름다워>는 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각각 말을 전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장면화해서 시청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내용의 전언인데도 굳이 그 반복적인 과정을 일일이 보여주는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정보를 이야기하는가가 무엇이 이야기되는가 하는 문제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인물과 인물들이 동일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인물들이 유사한 정보를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가를 통해 각 인물의 시각에서 서서 사건을 여러 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32)</sup> 가령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3대 장손이 동성애 자라는 정보를 확대가족의 여러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각각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심리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시청자가 직접 바라볼 때, ‘정서적 리얼리티’는 한층 더 강해지고 시청자와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거리 또한 더욱 가까워진다.

한편 <인생은 아름다워>의 전체 서사에서 태섭-경수 서사의 나머지 대부분인 22~31화는 경수의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수의 어머니 및 그 가족과 태섭의 어머니인 민재 및 불란지 가족의 대결로 이루어진다. 21화까지를 꾸준히 감상한 시청자는 민재가 경수의 어머니를 이기리라는 것을, 그리고 드라마의 중국에서는 경수의 어머니도 태섭과 경수의 관계를 나름대로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화~21화에 이르기까지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대사 속에서 축적된 은유의 체계화에서 비롯한다. 경수 어머니의 대사와 태섭 어머니 및 불란지 가족의 대사는 많은 은유적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표현들은 서사의 반복과 지속을 통해 축적되면서 각각 다른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은유

31) 윤석진, 「김수현의 가족드라마, ‘집’과 ‘밥’의 힘」, 『월간 말』, 월간 말, 2008, 163-164면.

32) 주창윤, 앞의 책, 28면.

적 표현들은 그 대상의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그 은유와 일치하지 않는 그 대상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한다.<sup>33)</sup> 그렇다면 <인생은 아름다워>의 대사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들은 동성애자 아들이라는 대상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일까.

**병태** : (눈물 흘리며) 다른 사람 애긴줄 알고 살았어... (민재, 울면서 병태의 팔뚝을 어루만진다) 내 집인 줄은 몰랐어.....

**민재** : 우리, 태섭이랑 싸우지 말자. 왜 그래야 하나고도 하지 말고, 안 된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자구. 셀 수 없이..... 죽고 싶었는데..... 그거면 됐어, 여보. 안 그래? (울음 고조. 병태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동설한 산봉우리 속에 우리 애 빨개벗겨 세워놓지 말자. 바람막이 쳐 주고, 옷 든든히 입히고, 우리가 난로가 되자 여보..... (부부 오열)

(20화, 밑줄 인용자)

**경수 모** : 아이들을 위해서도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괴물로 숨어 사느니...

**민재** : (발끈하여) 뭐라고요?

**경수 모** :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민재** : 경수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가네요. 우리는 한 순간도 그런 단어 떠올린 적 없어요. 여전히 잘난 우리 아들이고 아깝고 애달픈 우리 자식이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40화, 밑줄 인용자)

태섭-경수와 관련하여 <인생은 아름다워>에 등장하는 대사들은 대개 가 가족의 의무 및 역할에 대한 관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수 어머니는 경수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설득하고 태섭을 경수에게서 떼어내기

33)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노양진·나익주 공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31면.

위해 가족의 의무를 강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경수 어머니는 경수의 동성애를 정체성이 아닌 행위로 인식한다. 이 때 사용되는 대사는 “그 곳은 길이 아니다”, “거기는 춥다. 양지로 나와라” “땀뻘한 길을 놔두고 잘 못된 길을 가느냐” 등과 같은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경로를 이탈하는 이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4)</sup>

이 관념이 드라마를 수용하는 시청자의 인지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태섭과 경수의 동성 간 결합이 ‘정상적 경로’를 이탈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1화에서 21화에 이르기까지 범주 변형을 일단 완성한 시청자와 ‘불란지 가족’에게 있어 이러한 전제는 무용해진다. 더욱이 그 대사들이 “괴물”이나 “전염병자”, “뱀파이어”와 같은 은유에까지 이르게 되면, 경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이는 권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가족드라마의 본질적인 목표를 저해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게 된다. 반면 “우리가 태섭이의 이불이 되어주자”, “엄동설한 산봉우리 속에 우리 애 빨개벗겨 세워놓지 말자”와 같이 불란지 가족이 태섭-경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은유적 대사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상호 존중 하에 하나의 가족으로 뭉친다는 가족드라마의 보편적인 논리에 봉사하는 것으로 축적되고 체계화된다. 1화에서 30화에 이르기까지 축적되고 체계화된 이와 같은 각각의 관념들은 31화의 어머니 간 대결 장면에서 극적으로 충돌하는데, 드라마의 내적 논리는 이 대결에서 민재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경사되어 있으며, 범주 변형을 마친 시청자 역시 ‘불란지 가족’의 가치관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구축되는 정서적 리얼리티는 또한 화면의 프레이밍이나 배경음악의 사용과 같은 시청각적 연출을 통해서도 달성된다.

34) 경로 이탈과 도덕성의 은유 관계에 대해서는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임지룡 외 공역,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449면에서 「도덕적 한계」의 「사건 구조 은유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배경음악은 영상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달 영역(사운드트랙)으로서 나타난다. 음악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정서적 특성’을 부여해 주며 특수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드라마의 구성요소이다. 말하자면 텔레비전 드라마의 음악이란 영상에서 보이는 사건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를 날카롭게 해 주는 자극적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이다.<sup>35)</sup>

예를 들어 작품의 초반 방영분에서 동성애자 인물인 태섭과 경수가 등장하는 장면에는 [그림 4]와 같이 프레임의 좁혀고립감을 강조하는 마스킹(masking) 기법이 두드러지며, 태섭이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고



[그림 4]

민하며 외로워하는 장면에서는 자가용 안에 혼자 앉아 있거나 홀로 밤길을 드라이브하는 상황이 자주 사용된다. 이런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배경에 깔리는 음악은 대부분 같은 곡으로, 다소 빠른 템포의 단조(短調)를 통해 불안하고 쓸쓸한 정조를 자아낸다. 또한 드라마의 초반에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태섭이 귀가하는 장면은 항상 다른 여러 식구들이 화기애애하게 수다를 떨거나 놓고 있는 현장을 지나쳐 혼자서 방에 쫓 들어가는 동선으로 짜여 있어 태섭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비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가족드라마가 추구하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가치에 위배되는 정서이며, 해당 장면들은 가족드라마의 극적 목표를 위해 해소되어야 할 문제적인 상황으로 인지된다. 시청자들은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기 이전에도 비슷한 장르의 작품을 다수 접하면서 가족드라마라면 응당 지니고 있어야 할 장르적 속성에 대한 지식과 기대를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5) 크누트 히케티어, 김영목 역, 『영화와 텔레비전 분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59-160면.

반면 커밍아웃과 ‘불란지 가족’의 수용 이후의 분량에서 태섭이나 경수가 등장하는 장면들의 경우, 동성애자 자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수 어머니가 이들을 공격할 때를 제외하고는 앞서의 화면 구도나 배경음악이 이용되지 않으며, 화목한 가정의 장면을 보여줄 때에 사용되는 따뜻한 느낌의 장조(長調) 현악 연주곡이 깔리는 개방적인 미장센이 사용된다. 화면 프레임의 개방성 정도가 달라지는 지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태섭이 어머니인 민재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털어놓는 20화라는 것은 유의미한 지점이다. 말하자면 20화에서 태섭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장면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의 동성애 재현 및 수용과 관련하여 분수령을 이루는 순간인 것이다. 실제로 커밍아웃 이후의 분량에서는 태섭이 혼자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에도 밤 장면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희망적이고 활기찬 정조의 음악을 배경으로 환한 대낮에 제주도의 탁 트인 해안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연출된다. 심지어는 경수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듣는 장면에서조차 커밍아웃 이후 방영분의 경우 위기를 강조하는 배경음악 대신 앞서 언급한 장조의 현악 연주곡이 깔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커밍아웃과 가족의 수용을 일종의 분기점으로 볼 때 이전의 상황보다 이후의 상황이 더욱 긍정적이라는 해석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재 : 무슨 문제라는 거죠?

경수 모 : 모르세요? 결혼한다잖아요!

민재 : 알아요 안 될 거 있어요?

경수 모 :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악물고 저 하나 희생하면 온 집안 살리고 저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손가락질 받으며 비웃음거리로 살아요? 왜 꼭 그래야 해요? (민재, 어이없는 표정. 경수모, 예상외의 반응에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며) 나는 내 아들 돌려놓고 말거예요. 도저히 포기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받지 마시고, 택의 아들 떼어 놓으세요!

(...중략...)

**경수 모 :** 누구보다 효자같은 내 아들이 변한 건 이 녀석 때문이에요!

**민재 :** 억지 쓰지 마세요. 일곱 살 짜리들이예요? 뭐가 누구 때문이 어딴어요!

**태섭 :** (말리며) 엄마!

**민재 :** (... )우리는 경수 탓 안 합니다. 이걸 누구 탓할 일이 아니예요.

**경수 모 :** 여보세요!

(31화, 밑줄 인용자)

영상과 음악의 사용을 통해 경수네 가족에게는 부정적인 속성을, ‘불란지 가족’에게는 긍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연출은 31화에서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대결하는 시퀀스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에 앞서 19화에서 경수 어머니는 태섭에게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태섭의 가족에게 아우팅(outing: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폭로하는 것)을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아직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털어놓지 못한 태섭은 이 협박에 순순히 굴복한다. 그러나 태섭은 31화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경수 어머니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태섭은 그 이전인 20화와 21화에서 이미 가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경수 어머니는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당황한 채 태섭과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



[그림 5]

본다. 이 때 경수 어머니는 ‘불란지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으며, 태섭과 민재는 경수 어머니의 시야 속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울타리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 장면의 배경음악은 예의 화목한 가정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음악이다. 이는 경수네 가족의 불행과 ‘불란지 가족’의 행복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시청각적 연출이며, 여기에는 동성애자 자녀를 포용할 수 있는 가치관이 그렇지 않은 가치관에 비해 가족드라마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정 내 갈등의 원만한 봉합과 가화만사성의 달성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시청각적 연출 의도는 1화부터 31화까지 총 4개월에 달하는 방영 기간 동안 <인생은 아름다워>가 서서히 만들어 온 범주 변형의 과정에서 형성된 속성 선택의 기준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정서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 5. ‘아들의 남편’과 더불어 산다는 것

<인생은 아름다워>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담아내면서도 가족제도에 관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재확인하는 가족드라마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낸 작품이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접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는 이 작품에 있어서 가족드라마라는 장르와 동성애라는 소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가족드라마가 가화만사성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자 인물을 TV드라마의 장에 안착시키는데 사용된 구체적인 전략은 범주 형성의 원리와 그에 수반되는 정서적 공감의 형성이다.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통해 유지되는 확대가족이라는 ‘통념에 부합하는 가정’ 범주는 드라마의 전개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물



이라는 ‘일탈적 구성원’ 범주와 혼성되면서 동성애자 아들과 그의 파트너를 포용하는 형태의 ‘화목한 변형 가정’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확장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확대가족이라는 인물 구도 속에서 서사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을 보다 더 원활히 현실화하기 위해 편집, 대사, 프레이밍, 시청각적 연출 등 TV드라마 예술 형식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자 인물들은 ‘애달픈 내 자식’과 ‘아들의 남편’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여기에 바로 TV가족드라마에서 동성애가 다루어지는 현상의 양면성이 자리하고 있다.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시청자의 범주 변형이 기대는 기준이 가정의 화목함이라면, 이는 성소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인생은 아름다워>를 성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이와 같은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은 아름다워>가 이전까지의 TV 단막극이나 미니시리즈에서는 뛰어넘지 못했던 동성애자의 비극적인 숙명이라는 벽을 성공적으로 허물어냈다는 것은 이 작품의 부인할 수 없는 의의이다. 물론 이는 해당 인물이 가족의 틀 안에서 재현되고 수용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이성애자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지만 동성애자 인물의 성애(性愛) 또한 작품 속에서 거세하지 않고 꾸준히 표현해내고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애자는 결코 섹슈얼리티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표백된 존재로 그려지거나 그 반대로 현실과 유리된 환상적인 섹슈얼리티의 담지자들로 묘사되지도 않았다. 이는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추후의 연구를 통해 분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지닌 이상의 한계와 의의를 김수현 드라마 특유의 진보성과 보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자들을 그려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각 작품이 위치해 있는 양식과 장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수현은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 TV 가족드라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수자 인물의 2010년 식 전형을 만들어낸 셈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SBS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2010.3.20-2010.11.7 방영)  
김수현 공식 홈페이지(www.kshdrama.com) <인생은 아름다워> 스크립트

#### 2. 신문 자료

『조선일보』 2010.5.27., 2010.9.28.

#### 3. 단행본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도서출판 人, 2009.  
이윤진, 『한국의 이야기 문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국학술정보, 2006.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장르·미학·해독』, 문경, 2005.  
글렌 크리버 외, 박인규 역, 『텔레비전 장르의 이해』, 산해, 2004.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노양진·나익주 공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조지 레이코프·마크 존슨, 임지룡 외 공역,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최영호 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2009.  
크누트 히케티어, 김영목 역, 『영화와 텔레비전 분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Ang, Ien, *Watching Dallas*, London;New York:Routledge, 1996.  
Ellis, John, *Visible Fictions : Cinema, Television, Video*,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82.

#### 4. 논문

김연정, 「TV드라마 내 동성애 재현방식에 대한 연구 - <째즈> <슬픈 유혹>

<인생은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스리바스타바 사티안슈, 「한국 TV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유진희, 「김수현 멜로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성 이데올로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Vol.9, 한국콘텐츠학회, 2009.

유진희,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Vol.10, 한국콘텐츠학회, 2010.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 확보 방식 고찰」, 『한국극예술학회』Vol.21, 2005.

윤석진, 「김수현의 가족드라마-‘집’과 ‘밥’의 힘」, 『월간 말』, 월간 말, 2008.

이선옥, 「드라마와 동성애 담론-〈인생은 아름다워〉」, 『실천문학』 99호, 실천문학사, 2010.

이영미, 「문체적 작가 김수현」,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나무, 2008.

한유림, 「2,30대 여성의 아이돌 팬픽 문화를 통해 본 젠더 트러블」,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석사논문, 2008.

5. 웹사이트

SBS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게시판 (<http://tv.sbs.co.kr/beautifullife/>)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 사전([www.kscrc.org](http://www.kscrc.org))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인생은\\_아름다워\\_\(2010년\\_드라마\)#cite\\_note-1](http://ko.wikipedia.org/wiki/인생은_아름다워_(2010년_드라마)#cite_note-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ag\\_hag](http://en.wikipedia.org/wiki/Fag_hag))

Abstract

Homosexuality in the TV Drama  
: on *Beautiful Life*

Jo, Seo yeon

*Beautiful Life* is notable as the first TV family drama to deal openly with homosexuality. This essay analyzes the exceptional phenomenon of *Beautiful Life*, namely that it successfully achieves the objectives of its genre despite the fact that it deals with sexual minorities.

As the TV family drama is oriented towards embodying the values of the harmonious family, faithfully maintaining everyday and conservative sensibilities, it is difficult to tackle socially and ethically controversial material such as homosexuality. In order to create a narrative that comfortably tolerates homosexual characters within these limitations, *Beautiful Life* must successfully build, over the course of its broadcast, a gradual foundation for assimilating the audience to the values and worldview of the family portrayed in the drama. *Beautiful Life*, unlike other TV dramas dealing with homosexuality, characterizes the homosexual not as an isolated metropolitan individual but as the eldest son of an extended family living together on Jeju Island, and draws parallels with the heterosexual marriage narratives of other family membe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marriage theme for the character. These provisions lead to the cognition that homosexuality is not a burden for the eccentric and abnormal individual but rather an issue to be shared with the whole family, and that a natural acceptance of the homosexual family member is best for the harmonious survival of the family portrayed. In addition, *Beautiful Life* creates and sustains a certain specific emotion through the repeated use of metaphor in dialogues about the homosexual character, and also through highly contrastive visual and audio direction in

situations dealing with the said character. These features function as strategies for the gradual relief of any antagonism towards seeing portrayals of homosexuality in TV dramas and for an affective acceptance of the existence of the homosexual character.

In sum, the theme of homosexuality and the TV family drama genre do not clash, but rather work together in *Beautiful Life*. The drama ultimately places the two homosexual characters in the roles of 'our poor son' and 'son's husband'. Although this may be a limitation in terms of gender politics, it is a clear achievement of *Beautiful Life* that it does away with the fixed idea of a tragic destiny for the homosexual, which had inhibited previous dramas.

Key words : homosexuality, conservatism of TV drama, extended family, *Beautiful Life*

접수일: 2012년 1월 31일

심사기간: 2012년 2월 13일~3월 16일

게재결정: 2012년 3월 16일